농생명 식품 1번지 문화관광 품격 상승 함께 사는 상생경제

민선 7기 유기상 호(號)가 7월1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열악한 군세와 경제 여건으로 자칫 실의에 빠져 있을군민을 위해 취임 당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왔다. 지난 3년여간 고창군은 농생명 식품산업 추진과 역사문화관광, 함께 잘사는 상생경제의 핵심과제를 마련해 달려왔으며 그 기반 마련에 안착했다.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한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의 깃발로 출발한 유기상호의 3년여간의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 유기상 군수에게 듣는다

지역 번영에 '온 힘'

Q. 농생명 식품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 행정에서는 농축수산 관련 부서를 수석국으로 승격시켜 행정력을 집중하고, 농업 기술력을 극대화해 '유기농', '친환경', '고급화', '안전한 먹거리'의 고창 이미지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은 명품 작물들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역사문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민의 삶의 흔적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고창군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발굴되고, 가치를 찾고, 활용돼 군민들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생과 번영의 에너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Q.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한말씀 해주신다면?

A.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 식품산업 중심도시로

▲고창에서 만끽하는 농사 짓는 '행복'

△농민수당, 전북 전체로 확대

'농민군수' 유기상 고창군수는 역점 공약으로 2019년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고창발 농민 공익수당은 이듬해 14개 시·군 전체시행으로 확대됐고, 나아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했다. 21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중이다. 농민수당은 2년 연속(2019~2020년) 고창군민이 선정한 최고 뉴스에도 선정되며 지역 농민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올해는 양봉농가, 어가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을 확대해 모두 1만793농어가에 64억7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700여 농가에 4억7000만원이 늘었고,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을고창', 전국민의 밥상 사로잡는다.

유기상 군수의 메가히트작 '높을고창' 브랜드는 '농생명을 살려야 지역에 미래가 있다'는 고민 속에서 나왔다. 지난해는 수박, 멜론, 친환경 쌀에 높을고창 브랜드를 사용했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J the market 등을 통해 경기미 보다도 비싼값에 고창쌀이 팔리면서 프리미엄급 고급 농산물 이미지를 만들었다. 올해에도 딸기, 김, 고추, 고구마로 브랜드 사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엔 고창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몰'도 오픈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한 품목과 저렴한 가격은 물론, 지자체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면서 코로나19 시대 농산물 유통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최초 식초산업·식초문화의수도 선포 '식초문화도시 고창'

발효식품의 끝판왕 '식초', 고창군이 지난 2020년 11월 식초문화도시 선포 3개월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면역력 붐을 타고 복분자 발사믹식초을 생산하는 업체는 4배 이상의 매출 신장(2019년 4개 업체 8900만원→2021년 11개 업체 6억원 예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복분자 발사믹식초'는 국내 유명 셰프들이 와서 맛본 뒤 레스토랑 납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 발사믹식초 수입액이 한해 500억원에 달하는 데 고창의 복분자 발사믹 식초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군과 식품기업이 손잡으면 '대박'

농식품부가 주최한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선정된 전국 9곳 가운데 무려 3곳이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해 관심이 집중됐다. 상하농원을 비롯해 국순당 고창명주, 하이트진로음료 블랙보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고창쌀을 계약 재배해 농가 소득을 증대한 CJ프레시웨이까지 대상을 받았다.

▲"여기 트랙터 한 대만 배달해 주세요~" 농기계 배달 서비스 '히트'

고창군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마을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주면서 안전사고 등 농민불편이 크게 줄었다. 농민들은 이를 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필요한 농기계를 예약하면 전문가들이 전문 운송차량을 이용해 마을회관까지 배달해 준다.

고창군은 올 하반기 북부권(흥덕·성내·신림·부안) 사업소까지 건립해 농기계 임대·운송서비스를 권역별(4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반경10㎞ 이내, 즉 고창군 관내 농서남북 어디서든 15분이면 집 앞까지 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실현되는 셈이다.

'자존감 상승' 역사문화관광

▲고창무장기포 교과서 수록, 전봉준 장군 생가터 道 기념물 지정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1894년 3월 20일(음력)의 1차 봉기를 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전라도 고창 땅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을 모르고 있어 아쉬움이 컸다. 이에 고창군은 동학기념사업회, 동학유족회 등 관내 단체와 올력해 매년 학술대회 등을 열고 고창무장봉기를 부각 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교과서(2019년 11월 27일 검정) 전체에서 고창 무장봉기(무장기포)를 기술하게 되었다. 이는 동학 전문연구자들과 고창군민 등 소수만 알던 역사적 사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봉준 장군 생가터'가 전북도 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더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성금모금 운동'에 현재(7일 기준)까지 3만8647명, 2억2400만원의 성금이 모아져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자긍심 찾기 노력이 빛나고 있다.

▲잠들어 있던 지역 문화재의 가치 재발견… 3년 연속 국가보물 지정

고창군이 2019년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을 시작으로, 2020년 선운사 만세루, 2021년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까지 3년 연속 지역 문화재가 국가보물로 승격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2021년 6월 현재 고창군 보유 국가지정 보물은 11개로 늘게 됐다.

역사속에 묻힐 뻔했던 문화재가 고창군의 품에 안기는 행운도 따랐다.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뢰' 11점이 무더기로 발굴됐고, 동리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필사본 완질'이 발견됐다.

최근엔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1점이 도난된 지 30여년 만에 회수돼 고창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창군과 선운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석씨원류 목판복원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망실 및 파손된 목판 52매를 복원했다. 이에 더해 '조선시대 타임캡슐'로 일컬어지는 이재 황윤석 선생이 평생에 걸쳐 기록한 백과전서 '이재난고'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사를 맞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사람과 자연, 문화·예술로 위로받는다

고창군은 지난해 연말 국가지정 '법정 문화도시(예비)'에 선정돼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조직→관련 제도 마련→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활동 등 올 연말 본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반기에는 '치유문화도시 기초자원강화사업,' 시민문화공동체 형성 등 '문화도시 창의적 가치창출사업'과 도시재생과 문화관광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지역문화생태계 연계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창군 대표축제인 '고창 모양성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8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함께 잘사는 도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 국내 최고 식품기업 입주계약 잇따라

고창군에 곰표맥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맥주회사와 국내최고의 식품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면서 '기업하기 좋은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4월9일 흥덕농공단지, 복분자농공단지에 새롭게 입주를 희망하는 식품기업 2개사와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세븐브로이청운(주)'는 국내 1호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맥주(주) 자회사다. 흥덕농공단지에 209억원을 투자하고, 20명의 인력을 채용해 수제맥주를 제조·판매할 계획이다. '(주)다좋은'은 복분자농공단지에 입주한 농업회사법인(주) 이앤지푸드의 자회사로 52명을 채용해 컵밥,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이슬람문화권의 할랄식품 등 가정간편식을 생산하게 된다.

오랫동안 군민들을 애타게 했던 고창일반산업단지도 2019년 연말 유치권 해결에 이어 단숨에 기업유치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고구마 가공공장과 고품질 쌀 가공시설이 착공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 지역소재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입주기업 체감만족도에서 고창군은 전북 1위, 전국 5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공고히 했다.

▲취업하기 참 좋은 일자리 도시 고창군

고창군은 '2021년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고창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인센티브 7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고창군은 16개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효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유지, 상하농원 일자리프로젝트(짓다, 놀다, 먹다), 체류공간 제공과 창업지원, 코로나19 대응 공공형 일자리 사업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자리 정책 홍보 노력도 부문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의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 이번 수상으로 고창군은 도 일자리 정책평가에서 3년(2020년 최우수, 2019년 우수상)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대업을 이뤄냈다.

▲고창사랑상품권,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단비됐다

유기상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고창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까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편의성을 한층 높인 '높을고창 카드'를 출시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502억원에 달한다. 상품권 판매액은 총 477억원으로 전년(70억원)보다 6.8배, 이 중 개인 판매액은 267억원으로 전년(40억원)보다 6.7배 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현금으로 환전된 금액 역시 438억원으로 전년(58억원)에 비해 7.6배나 늘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증명했다. 확대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유통되며,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속에선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각종 지원금이 상품권과 높을고창 카드로 충전됐고 10%추가 충전 혜택까지 더해져서 골목 상권에 전방위적으로 매출 회복이 확인된다.

▲고창군민, '삶 만족도' 전북에서 제일 높았다

최근 전라북도가 발표한 '2020년 전북 사회조사'에서 고창군민의 '삶 만족도'는 6.9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평균(6.2점) 보다도 0.7점이나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 긍정비율이 62.4%, 전반적 소비생활 만족도 긍정비율이 56.4%였다. 이는 군민 절반 이상이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창=김영식 기자